

유가 진정과 견조한 기업 실적에도 기술주 불안에 지수 혼조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AI 수익화 의구에 반도체 투심 약화, 3 대지수 혼조

- 미 증시는 DOW +0.46%, S&P500 +0.05%, NASDAQ -0.64% 혼조. 유가 급등세 일단락에 소재, 필수소비재, 금융 등 대부분 업종 상승, 기술주 하락에 상승 제한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4.3% AI 투자의 수익화 우려 반도체 투심 부담. 인텔(-7.9%)은 전일 시장예상치를 상회한 호실적 발표에도, 파운드리사업 신규고객 확보 우려 부각되며 약세 전환. 애플(+3.5%)이 미 행정부에 중국산 반도체 사용 승인 요청에 나서며 공급망 불안 가중
-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집계상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S&P500 기업의 85%가 시장예상치 상회한 순이익 발표. 이번주 MS, 메타, 애플 등 빅테크 실적발표 및 FOMC 회의 등 주시

중동 중재 기대 및 홍해 전면봉쇄 우려 완화에 유가 하락전환

- 국제유가 하락 WTI \$89.3(-3.1%), Brent \$96.8(-3.9%). 파키스탄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중동 협상 중재를 시도한다는 소식에 지정학 공포 완화. 또한, 후티 반군 측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만 제한적 봉쇄하며 전면 폐쇄는 없다는 입장 시사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 진정
-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대규모 공습 검토가 투심을 제한했으나, 주말중 NYT 보도에 의하면 대규모 전투작전 시행시 중동내 미군 방공미사일 재고가 위험수준으로 고갈된다는 참모진 보고에 공격 보류 결정

PMI 혼조 속 인플레이 부담 상존, EU 구글 과징금에 대 EU 보복관세 경고

- 7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53.6 전월·컨센 상회, 8개월래 최고치. 반면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53.8 전월·컨센 하회. 신규주문 증가세 둔화, 투입비용 인플레이 14개월래 최고치, 판매가격 인플레이 4년래 최고치
- 트럼프 행정부 24일부 강제노동 관세 발효한 한편, 대EU 무역법 301조 조사와 보복관세 예고. 앞서 EU가 구글에 대해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 명목 8.9억 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조치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AAPL	애플	+3.5%	중국산 메모리 칩(CXMT, YMTC)을 미국 외 판매 제품에 탑재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 대상 적극적인 로비를 진행 중이라는 WSJ 보도 전해짐. 이에 대해 마이크론(-7.0%) 경영진은 미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 중, 미국 내 공장을 더 빨리 건설하고 자국 투자를 늘림으로써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QCOM	퀄컴	-2.4%	공급망발 비용 상승에 따라 가격 인상 발표. 부품 공급업체발 원가 상승분을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다며 9월 1일 이후 출하 제품부터 두 자릿수 가격 인상을 고객사에 통보
ORCL	오라클	-4.2%	미 국방부와 5년간 \$3.31B, 옵션 행사시 10년 최대 \$6.99B 규모의 통합 소프트웨어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주가 하락 마감, 52주 신저가에 근접. 계약 규모가 연매출 및 최근 12개월 자본 지출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 영향
NOW	서비스나우	+7.4%	22일 실적 뒤늦게 반영하며 주가 강세. 분기 구독 매출(+25% YoY)과 핵심 수주 지표인 cRPO(+21% YoY) 모두 컨센 상회. AI 연간 계약가치 \$1B 돌파하는 등 AI 수익화 우려 일축
AMKR	앰코 테크놀로지	-0.6%	엔비디아(-0.9%)와 \$1.5B 규모의 다년간 반도체 패키징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나 주가 하락 마감.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했음에도 정규장 증가는 전일대비 하락. 엔비디아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애리조나 중심의 미국 내 생산 캐파를 확장하고, 차세대 이종 집적화 등 기술 로드맵을 공유할 계획
VZ	버라이즌	+5.8%	실적발표. 2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 EPS는 상회하며 엇갈린 실적 발표. 연간 가이드언스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주가 상승 마감
SPCX	스페이스X	-2.7%	연기되었던 스타십 13차 시험비행 성공 소식 보도. WSJ 따르면, 일론머스크의 보링컴퍼니는 약 \$20B의 기업가치로 \$4B 규모의 신규 펀딩 조달을 논의 중